

제7회 『사회연구 학술상』 우수상 수상논문

이광수 소설에 투영된 근대적 주체의 염원과 식민지 근대성에 관한 연구

김도훈

이 글은 이광수의 소설이 표상하는 근대적 주체의 염원과 식민지 근대성의 현실을 텍스트에 내재된 '욕망'의 구조 변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다. 이광수를 단순히 계몽작가이자 통속작가로 보는 관점이나 일제 말기에 그가 보여준 친일 행적의 동기를 통해 춘원의 사상과 글쓰기의 내재적 모순을 발견하고자 하는 기존의 소설 독해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이광수 소설의 서사구조와 그 변동을 개인과 역사적 맥락과의 동태적 상호작용을 통해 분석적으로 접근한다.

이광수의 소설이 내포한 개인적인 욕망의 구조와 그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상황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근대적 주체와 소통하고자 한 작중화자의 염원이 식민지 근대성의 현실과 맞물려 어떤 굴곡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르네 지라르의 소설 분석들을 빌려 조명한다. 춘원의 글쓰기를 단순히 친일행각에 대한 자기변명 내지 합리화의 서사로 바라보다가, 그의 글에 반영된 식민지 조선의 현실 속에서 당대의 지식인이 맞닥뜨린 실존적 상황으로서의 '고아의식'의 문제를 식민지 근대성의 구체적 양상으로서 들여다본다.

이를 위해 조선을 당위론적 의무로, 일본 제국을 궁극적인 욕망의 투사로 보는 기존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이광수가 '각성된 자아와의 소통'이라는 궁극적 욕망을 추구하는 데에 매개된 욕망의 두 축 - 민족의 계몽 및 예술적 창조와 표현 -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이광수의 소설들에 투영된 매개된 욕망은 연대기적으로 일본 제국에 대한 의존 → 조선으로의 회귀 노력 → 조선 사회의 물이해와 편협함에 대한 원망 → 민족 개조의 이상 → 물리적인 도달불가능성에 대한 자각 → 증폭된 욕망과 좌절의 고통을 잊기 위한 체념의 궤적을 그린다.

이런 매개된 욕망의 굴곡을 읽어냄으로써 강요된 근대화의 과정을 밟는 식민지의 현실 속에서 근대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아와의 소통을 갈구한 식민지 지식인 개인의 내면세계와 고뇌에 보다 심도 있게 다가서고자 한다. 아울러 이런 해석을 통해 현재의 '근대적 주체'인 한국인들이 당면한 역사사회학적 문제에 대해 새롭게 성찰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이광수, 소설 분석, 근대성, 근대적 주체, 식민지 근대성, 르네 지라르, 매개된(간접화된) 욕망, 근대적 사랑

1. 서론

1) 연구목적 및 대상

이 글은 이광수의 소설에 투영된 근대적 주체의 염원과 식민지 근대성의 현실을 텍스트에 내재된 '욕망'의 구조 변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광수를 단순히 계몽작가이자 통속작가로 보는 기존의 해석은 종종 “춘원의 문학적인 포부나 의욕이 처음부터 순문학적인 것이 아니며, 처음부터 계몽적인 것이었다”(조연현, 1969)고 지적한다. 또한 “춘원이 문학사에서 맡은 바 몫은 사실상 『무정』으로 끝났”으며(김윤식, 1999), 그 이후의 저작들은 대개 “저열한 흥미를 노린 통속소설이면서 주제과잉의 설교조 소설이라는 양면성을 지닌 ‘이행기 문학의 변태적 양상’(조동일, 1986)이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이광수의 소설이 문학 자체로는 별 볼일 없다는 이런 통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작품을 통한 작가론을 전면에 내세운 논의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¹⁾ 그러나 이 또한 춘원의 사상적 변모, 즉 자기 개량적 계몽→민족적 각성을 통한 민족 개조→종교적 성찰을 통한 인류구원이라는 도식 속에서 일제 말기에 이광수가 보여준 부일 협력을 좌절의 귀결로 단정한다. 즉, 이광수가 겪은 좌절의 원인을 모종의 민족주의적 관점 하에 춘원의 사상과 글쓰기의 내재적 모순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통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나는 “문학적 작품을 쓴다는 것보다는 논문대신으로”(이광수, 1931) 써어진 이광수의 소설이 내포한 욕망의 구조와 그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대적 주체에 대한 염원이 식민지 근대성의 현실 속에서 어떤 굴곡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조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춘원의 글쓰기를 단순히 자기변명 내지 합리화의 서사로 바라보기보다, 그의 글에 반영된 식민지 조선의 현실 속에서 당대의 지식인이 맞닥뜨린 실존적 상황으로서의 ‘고아의식’의 문제를 식민지 근대성의 구체적 양상으로서 들여다보고자 한다.

1) 이런 시각의 대표적인 예로 윤홍로 1992 『이광수의 문학과 삶』, 한국연구원 참조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방법

식민지 조선의 역사에서 ‘근대적 주체와 ‘식민지 근대성이 서로 표리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자는 본래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개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의 경계가 모호한 두 용어를 굳이 이 글의 분석틀 속에서 대비시키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이광수의 텍스트에서는 이런 접근이 한국의 역사·사회적 현실을 새로운 관점에서 심도 있게 성찰할 여지를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는 이광수가 ‘고아의식’을 초극하는 방편으로 염원한 근대적 주체와 그 형성에 끊임없이 제약을 가하고 굴절시킨 현실로서의 식민지 근대성을 대비시키함으로써 근대적 주체의 염원과 식민지 근대성의 현실이 소설에 내포된 욕망의 구조 속에서 상호침투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광수 소설과 근대적 주체와의 관계를 다룬 최근의 연구로 신환중(2001), 서영채(2004), 신정숙(2003)의 논문 등이 있다. 신환중은 이광수의 소설에 투영된 서구 근대적 개인의 특성을 ①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②고백이란 장치에서 출발한 프라이버시를 바탕으로 한 세속적 내면과 자아의 등장, ③인간의 욕망에 대한 긍정과 해방의 지향, ④감성, 혹은 정(情)을 중심으로 한 자기통제적 인간으로 요약한다. 서영채는 같은 맥락에서 사랑에 대한 개인의 자발적 감수성과 자기 결정 가능성을 근대적 인간의 특성으로 강조한다.

반면 신정숙은 이광수의 대표적인 소설인 『무정』(1917), 『재생』(1924-25), 『사랑』(1938)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 시기별로 이광수의 민족개조사상의 흐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조명한다. 신정숙은 이광수의 소설이 형상화한 근대적 프로젝트로서의 몸이 국가 유기체적인 몸이며 진화론적인 몸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의 「민족개조론」에 나타난 계몽적 기획역시 몸의 유용성 증대에 맞춰져 있고 전체주의적 성격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제국주의의 팽창을 합리화하는 이성의 도구로 활용되었다고 비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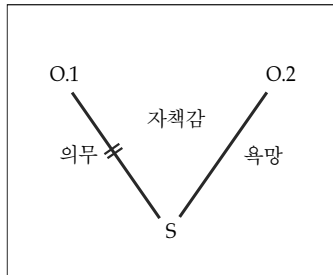
한편 식민지 근대성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통해 이광수의 소설을 분석한 비교적 최근의 연구로 마이클 신(Michael, 1999)의 논문이 있다. 마이클 신은 조선에 신문학이 ‘번역’의 과정(이광수의 창작을 포함하는)을 거쳐 들어오면서 근대적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조망한다. 마이클 신은 이광수 소설에 등장하는 ‘풍경’(landscape)과 ‘내면풍경’(interiority)의 이원적 대립이 각각 일제의 헤게모니 지배와 그에 대응한 조선 지식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투영했다고 본다

나는 신환중이 분류한 서구적 근대성과 서영채가 강조한 사랑에 대한 태도를 이광수의 소설이 염원하는 근대성의 특질로 받아들이면서 그 염원의 구체적 표현양태로서의 ‘몸’에 대해 신정숙 등이 이광수의 의도를 곡해²⁾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자 한다. 또한 마이클 신이 조명한 이광수 소설의 이원적 대립구도가 지나치게 민족과 제국의 대립향으로 단순화되어 있는 점을 지적한다. 즉, 실존적 개인으로서의 이광수가 처해 있는 ‘내면풍경’의 대립향으로서의 ‘풍경’에 일본 제국 주위의 헤게모니 뿐 아니라 조선의 전근대적 현실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런 관점을 통해 이광수가 체현한 ‘고아의식’의 본질과 식민지 근대성의 다층적 양상에 대한 논의를 보다 확대시키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주환의 이광수 텍스트 연구에서 소설 전반을 통해 내재되어 있는 ‘욕망’의 구조에 대한 분석을 비판적으로 흡수한다. 최주환에 따르면 이광수의 소설에는 항상 애정삼각관계가 자리하는데 이것은 어떤 불가피한 선택의 문제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수렴한다(최주환, 2005). 그것은 한편으로는 열정을 고양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도덕성을 규정하는 이분법을 그 기본적인 구조로 한다³⁾

2) 신정숙의 이광수 사상에 대한 비판은 푸코 등의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을 절충한 시각을 전형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가 인식의 바탕으로 기댄 이론들이 표방하는 근대성 비판의 틀에 끼워 맞추는 과정에서 이광수의 저술에 명시된 의도와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의 효과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지고, 텍스트의 의미가 다분히 곡해되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전반적으로 논의한다.

『무정』의 형식, 『재생』의 순영, 『흙』(1932-33)의 허송이 제각기 ‘의무’의 표상인 영채, 봉구, 유순 대신 현실적 ‘욕망’의 표상인 선형, 윤희, 정선을 선택한 데에 대한 ‘자책감’이 스토리 구조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 최주한의 분석이다. 그는 그 서사구조를 다음의 도해로 표현한다.



<그림 1>

최주한은 작중화자의 그 마음 편할 수 없는 심리상태가 근대화의 이념, 즉 이광수가 선택한 섹(일제와의 타협을 매개로 한 민족의 근대화)이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합리화의 기제로서 문화적 사명감을 만들어냈다고 본다. 나는 최주한의 서사구조를 참고하는 한편으로 르네 지라르(René Girard)가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에서 주창한 ‘매개된 욕망’의 도식을 받아들여 이광수의 서사가 단순히 그가 욕망의 대상인 일본 제국의 권력에 순응한 사실에 대한 자책감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보다 이광수가 소설에서 일제의 권력을 매개된 욕망의 한 축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각성된 자아와 현실의 소통(혹은 근대적 주체와의 소통)이라는 이광수 개인의 보다 궁극적인 욕망이 작중화자가 중개자들(일본/조선)과 가지는 관계의 변모에 따라 부침을 겪고 있음을 밝힌다.

3) 최주한은 이런 구도가 장 샤를르 세뇨레(Jean-Charles Seignuret)의 『문학적 주제와 모티프 사전』의 논의를 따르고 있다고 밝힌다.

2. 본론

1) 소설에 투영된 조선의 현실과 근대적 주체의 염원

근대 사회의 기초는 중세의 신민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자율적 개인의 확립을 전제로 한다(조형근, 1997). 즉 근대 시민은 이전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증대된 개인의 자유에 따라 사회·국가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중요한 삶의 국면을 선택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율성을 누린다. 이런 자율적 개인의 확립은 적어도 서구적 맥락에서 봤을 때 인간존엄성의 자각, 프라이버시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객관적 조건 하에 가능하다. 그리고 그 조건은 사회계약론의 이념을 기반으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발현된다.

조선에서 법적으로 공사의 영역을 가르게 된 것은 1905년 형법대전이 제정되면서부터였다. 그러나 국가와 가족 개인을 겹쳐 보려는 전통 속에서 ‘공’과 ‘사’를 엄밀히 분별하는 의식은 아직 익숙지 않은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사(私)의 의미는 주로 개인의 이익이나 편견을 함축했기에 지양해야 할 것이었다. 사적 영역이 자립성을 획득하고 공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가치로 서기 위해서는 따라서 ‘사’ 자체의 의미의 전이가 이루어져야 했다(신환중, 2001). 이런 의미의 전이는 비로소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신문과 문학을 통해 ‘개인’, ‘자아’라는 낯선 단어가 출현하고 “自己를 차저라”(최승구 1915)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광수 초기의 소설들은 이런 면에서 선구적인 위치를 점한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과 소명을 깨우쳐 준 톨스토이의 영향 아래 일본 유학시절 고아로서 가난하고 외로웠던 체험에 대한 자기고백적인 형상화를 통해 근대적 ‘개인’과 ‘자아’의 면모를 보여준다. 사랑하던 누이가 부모의 손에 이끌려 강제로 정신지체아와 결혼을 하게 된 사건을 다룬 『소년의 비애』 등의 단편에서 보이는 문제의식과 일본 유학 시절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환상을 추억하는 『어린 벗에게』의 다음과 같은 술회는 ‘민족과 국가’의 담론이 아직 횡행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광수의 자각한 근대적 개인으로서의 내면세계가 조선의 전통적 현실과 파열하는 지점을 가늠케 한다.

나는 조선인이로소이다 사랑이란 말은 듣고 맞은 못 본 조선인이로소이다. 조선에 어찌 남녀가 없사오리까마는 조선 남녀는 아직 사랑으로 만나본 일이 없나이다. 조선인의 흥중에 어찌 애정이 없사오리까마는 조선인의 애정은 두 옳도 피기 전에 사회의 습관과 도덕이라는 바위에 눌리어 그만 말라죽고 말았나이다. (중략) 대체 사회의 건조무미하기 우리나라 같은 데가 다시 어디 있사오리까. 그리고 품성이 비열하고 정(情)의 추악함이 우리보다 더한 이가 어디 있사오리까. 그리고 그 원인은 교육의 불량 사회 제도의 불완전 - 여러 가지가 있을지나 그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남녀의 절연(絶緣)인가 하나이다.

작중화자의 이같은 술회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긍정 및 해방의 지향’과 자발적인 근대적 감성인 ‘정(情)’을 중심으로 한 자기 정체성을 체화한 개인이 맞닥뜨린 현실 - 강제적 혼인제도, 조혼의 관습, 축첩제, 교육의 불량 등으로 표상되는 사회의 습관과 도덕에 대한 계몽적인 비판으로 발전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17년에 씌어진 이광수의 「혼인에 對한 管見」은 혼인의 목적을 ‘생식과 행복’으로 규정하면서 육육만을 위한 ‘원시적 연애’가 아니라 ‘영과 육이 합일된 진화된 사랑’에 의해서 개인의 행복이 획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이광수의 위 논지에서 발견되는 일련의 구절들, 이를테면 “생식의 이상은 건전하고 재능많은 자녀를 가급적 많이 생산하여 가급적 완전하게 교육함”이라거나 “일민족이나 전세계 인류의 발달은 오직 건강하고 재능 많은 아동과 현명하게 교육받은 청년에 달렸으니까 이 생식이야말로 인류의 최종최대한 이상”이라고 밝히는 대목이 현재의 관점에서 사회진화론과 우생학에 기댄 전체주의를 내포하는 것으로 비판되기도 하나 (이경훈 2001), 그것은 사후적인 관점에 준거한 논리의 비약인 것으로 여겨진다. 같은 논설에서 이광수가 “원만한 가정은 아마 연애에 채(次)하는 인생의 행복이겠지요. 그러고 연애에 종속하는 인생의 행복이겠지요. 인생의 질로 최대한 행복을 연애에서 얻음과 같이 양으로 최대한 행복은 가정에서 얻을 것이외다”라고 밝히고 있는 구절만 보아도 그가 ‘종족의 번영’과 ‘개인의 행복’을 공히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1910년대 당시 식민지 지식인의 관점에서 개성의 발견과 신장은 개인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발전과 역량 강화로 연결되는 문제였다. 그러나 당대 신채호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민족을 구하는 ‘영웅’에 대한 담론이 개인의 실존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집단화된 자아를 표상(신환중, 2001)한 반면, 뒤이은 이광수의 ‘천재’ 담론의 다음과 같은 표현은 집단의식의 균열 속에서 자기의 완전한 자각과 실현을 외치고 자아의 고립된 실존으로 인한 고뇌를 피력했다는 점에서 근대적 주체 혹은 개인주의의 전범을 잘 드러낸다.

“목숨이 아까와 귀중한 자아를 꺾어? 자아!, 자아!, 이 곧 없으면 목숨 아니요, 기계라”(이광수, 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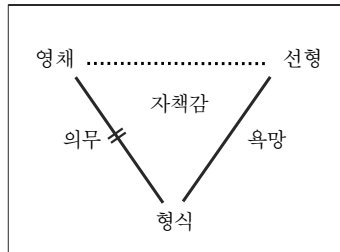
꿈이 거대한 바위를 보고 “귀중한 자아가 그의 압박을 받는 듯하여” 온몸으로 바위에 돌진하기를 거듭, 마침내 피를 뿌리고 죽었다는 내용의 이 시에서 보이듯이, 그 의식은 정연한 합리성보다는 이광수에게 정情(情)으로 귀결되는 낭만적 열정을 보다 중요시한 것이었다⁴⁾ 그리고 그 열정은 각성된 자아의 본원적 고독을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기도 했다.

이렇듯 이광수의 계몽주의 담론에 깔린 개인의 고립된 실존의식과 욕망이 현실세계에서 충돌한 지점이 초기의 단편들에서 ‘좌절된 애정’을 통해 묘사되었다면, 1917년 세상에 나온 『무정』은 이런 내적화자의 욕망이 부분적이거나 충족되는 성취와 그 한계에 대한 서사를 애정삼각관계의 도식으로 확립한 최초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작가의 현실세계에서도 그 성취의 일단(소설의 연재)이 일본 제국에 대한(그리고 제국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했다는 점이다. 그런 현실은 ‘자책감’보다는 ‘자기 욕망’의 지점을 되돌아보게 했다.

4) 이 점은 ‘합리화’를 내세운 근대성에 내재된 폭력에 대해 주목한 푸코의 담론과 이를 부분적으로 승계하여 한국의 식민지 근대의 현실 속에서 형성된 ‘근대적 주체’를 단지 ‘규율’과 ‘훈육’의 관점에서 고찰한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의 논의가 보다 자발적인 ‘자아 형성’의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일깨운다. 근대성의 형성에서 개인의 자발적 감성의 형성에 주목한 논의로는 Giddens, *Modernity and Self-Identity*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 *Transformation of Intimacy*(London : Polity Press), 1992 참고.

2) ‘자책감’을 넘어서는 욕망의 딜레마

최주한은 『무정』에 나타난 애정삼각관계의 갈등구조가 한편으로 ‘욕망’을 지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데 대한 주체의 딜레마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더 나아가 형식이 몰락한 양반가문에서 기생이 된 영채를 버리고 유복한 기독교 집안의 선형을 택한 스토리 구조 자체가 그 ‘욕망’의 선택을 궁극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그에 대한 ‘자책감’을 항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구조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최주한 2005). 이를 아래의 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2>

미천한 신분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신분을 향해 상승하고자 하는 청년 형식의 야심이 빚어낸 선택이 ‘의무’와 ‘욕망’간의 갈등과 영채에 대한 자책감을 만들어내지만, 작중화자의 태도에는 근본적으로 영채에 대한 의무감보다도 그 의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우선하고 있다는 것이다.⁵⁾ 그리고 그런 욕망으로 인한 자책감의 갈등구조를 타개하기 위한 해소의 방편으로서 ‘선형과의 결합이 문명 조선의 건설을 기약한다는 명분’과 ‘민족적 사명감을 제고하는 결말부분의 클라이맥스(수해 장면)’가 필요했다고 보고 있다.

5) 최주한은 이런 욕망을 형식이 영채의 겁탈여부에 대해 모른 채 “이제 영채가 처녀가 아니라고 단정해버리고 따라서 영채와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작중화자의 사고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논한다(p. 44).

최주한은 이런 스토리구조가 내재한 의미를 이광수 본인의 행적에 대한 정당화 기제에서 찾는다. 실제로 『무정』은 1917년 1월에서 6월 까지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지면을 얻으면서 연재될 수 있었다. 이광수가 총독부의 기관지와 관련을 맺게 된 것은 그가 1916년 9월 「대구에서」라는 조선 지식 청년의 구제책과 관련된 헌책의 성격을 띤 글을 발표하면서부터다(김윤식, 1999). 이때부터 이광수는 「매일신보」의 지면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총독부의 특별 지시 아래 오도답과 민정 시찰을 위한 조선 행각에 앞장서는 등 자신의 문제를 널리 인정받으면서 조선과 총독부의 동시적인 주목 아래 화려한 문필활동을 벌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최주한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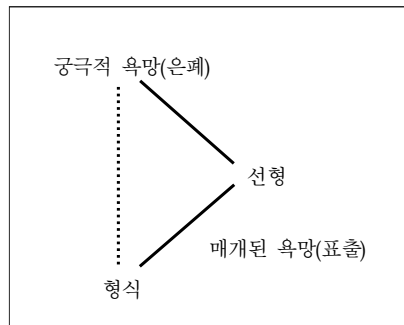
최주한은 그것이 이광수(형식)의 개인적 야심을 충족시켜 주는 발판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족(영채)을 배신하고 ‘제국 권력(선형)과 손을 잡았다는 자책감을 만들어냈으며, 이런 내면의 갈등구조에 대한 작가적 투영이 비단 『무정』뿐만 아니라 뒤이은 저작들의 애정삼각 관계를 관통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연대기순으로 그 투영의 양상은 총독부와의 관계가 불러일으킨 세간의 평가에 대해 “정당한 관계라는 항변”(『무정』),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변명”(『재생』, 『흙』, 『유정』), “부정한 관계에 대한 참회”(『그 여자의 일생』, 『애육의 피안』), “불가피한 관계라는 합리화”(『사랑』, 『원효대사』)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비록 최주한의 분석이 이광수가 부분적으로 내면화한 자책감의 한 본질을 바라보는 데 독창적인 기여를 하고 있지만, 나는 그의 분석이 다음의 세 가지 면에서 이광수 소설이 표상하는 실제 현실 즉 식민지 근대성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협소화한다고 본다

첫째, 일단 『무정』에만 논의를 국한시켜 봐도 작중화자인 형식의 궁극적인 욕망이 선형에 대한 소유만으로 귀결되는지 의심스럽다. 소설의 초반부에서 형식이 고아출신의 교사로서 학생들에 대한 가르침을 통하여 동포에 대한 헌신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선형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형식이 선형과의 결합을 단순히 기존 생활과의 완전한 단절을 가져오

는 요인이 아니라 기존에 품었던 염원을 실현시켜 주는 강력한 힘 내지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이 경우 선형으로 표상된 제국 권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형식으로 표현된 이광수의 궁극적인 염원을 달성시켜 주는 중개자라고 볼 수 있다.

르네 지라르는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에 나타난 근대 소설 구조의 분석에서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이상과 그가 살고 있는 현실 사이에 단절이 있기 때문에 모든 소설의 주인공은 그 단절을 극복하고자” 하며, “소설 주인공의 모든 욕망은 중개자에 의해 암시된 가짜 욕망으로서 삼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즉, 소설의 주인공은 자연발생적인 욕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중개자에 의해 암시된 욕망을 품는다는 것인데, 이렇게 주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대상을 달성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맺게 되는 중개자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욕망을 지라르는 ‘매개된 욕망’(désir médiatisé)이라 부른다(르네 지라르, 2001). 그 논리를 따라 앞서 살펴본 최주한의 스토리구조에 대한 도식을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변형해 볼 수 있다.



<그림 3>

둘째, 『무정』에서부터 전형화된 도식인, 작중화자(형식)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영채)에 대한 감정을 단순히 ‘의무’로만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적어도 최주한의 논리체계 내에서 이것은 의무로만 설명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자책감을 설명하는 도덕적 당위

의 표준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각 소설에서 작중 화자가 이런 일련의 ‘도덕적 인물’(『무정』의 영채, 『재생』의 봉구)에 대해 취하는 태도에는 의무감뿐만 아니라 욕망과 평가가 혼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항상 의무의 대상이기만 할 수 없었던 조선의 현실식민지의 맥락만으로 국한되지 않는³⁾을 반영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리고 그런 조선의 구체적 현실이야말로 이광수의 자아가 현실세계와 파열하는 지점이고, 또한 그가 끝끝내 본원적 고독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이다.

셋째, 최주한의 논리대로 이광수 소설의 구조 전반과 그의 이상을 욕망-의무 사이에 긴 내적화자의 자책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어기제로만 이해하면, 1939년 ‘동우회사건’ 이후 ‘변절’을 결심한 이광수가 쓴 『사랑』의 순옥이 왜 아무런 욕망도 없이 단지 전도된 식민권력으로서 의무의 대상(허영)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런 전도된 비약이 어떻게 그의 논리 체계 내에서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찾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인식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분석으로 다음 장에서는 이광수의 근원적 욕망과 조선에 대한 시각 그리고 일본 제국과의 관계 변모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사랑』에서 완결된 ‘변절’로의 비약이 매개된 욕망의 틀 내에서 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의 소설이 형상화한 조선의 현실과 일본 제국의 속성을 살펴본다.

3) 이광수의 욕망과 ‘관계’의 변천

이광수가 표방한 근대화의 이상을 최주한의 논의를 따라 단순한 자기방어 기제로만 보면, 『무정』 이전에 씌어진 단편들에 투영된 이광수 개인의 문제의식과 문제가 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내면의 의지를 읽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소설과 별도로 이광수 개인의 욕망이 발원한 지점과 그 내용을 살펴보는 일이 중요한데, 이광수의 소년 시절에 대한 다음과 같은 술회는 그 이해의 실마리가 된다.

처음 동경에 유학을 갈 때에는 세계에 이름난 사람이 되리라는 막연한 생각밖에 없었다. 십사세의 소년일뿐더러 그때 조선에는 이러한 소년에게 무슨 구체적인 야심을 줄만한 자극이 없었기 때문이다. (중략) 그러나 내가 동경 가서 일년이 못되어서 일진회의 합방 선언서를 보고, 그런지 얼마 아니하여 보호수약(을사조약)이 성립되고, 동경의 한국 공사관이 없어지매 우리의 야심은 방향을 변할 수밖에 없어서 매우 음울하고 잠행적인 야심을 가지게 되었으니 그것이 곧 문장과 교육으로 동포를 깨우치자는 것이었다. 내가 오산 학교에 간 것은 아마 그러한 동기였을 것이다(이광수, 1962).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돈 한 푼 없는 몸이 동서로 표류하여 가난의 고초를 받”(이광수, 1967)이었던 이광수 스스로 한일합방 이후 비로소 생겨난 야심 - 문장과 교육으로 동포를 깨우치자는 것이 매우 ‘음울’하고 ‘잠행적’인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그 야심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 결코 손쉽게나 경쾌하지 않은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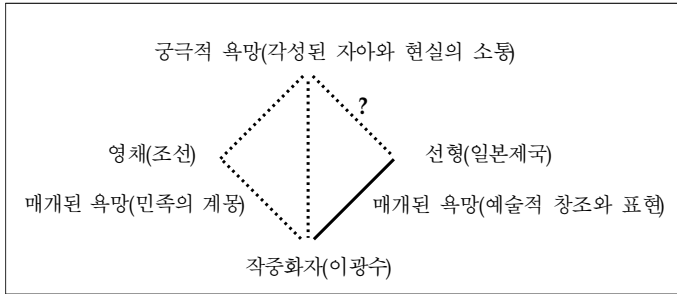
이런 욕망에 대해 마이클 신은 이광수가 「동경에서 서울까지」(1917)에서 그간의 ‘춤고’ ‘적막한’ 일본 제국으로부터 고향으로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황폐한 조선의 경치를 바라보며 새로운 예술-문학을 창조함으로써 신세계를 열어갈 것을 염원하는 대목에서 일본 제국의 헤게모니를 상징하는 춤고 적막한 ‘풍경’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내면풍경’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식민지인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Michael, 1999). 그러나 이는 단지 부분적인 사실의 반영에 그치는데, 다음과 같은 술회는 ‘춤고 적막함’의 동기가 단순히 일본 제국으로만 환원될 수 없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설혹, 내 능력과 정성이 부족하여 나의 노력이 아무러한 큰 효력도 生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나는 실로 내 진정으로 조선 사람을 위하여 한 것이었다. (중략) ‘적막도 해라’ ‘춤기도 해라’ 할 적마다 ‘조선이 내 애인이라고 생각하려고 애도 썼다. 그러나 나의 조선에 대한 사랑은 그렇게 작열하지도 아니하였고 조선도 나의 사랑에 대답하는 듯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아까도 김군께 다만, “아니 나는 오직 혼자요”라고 대답할 뿐이었다(이광수, 1967).

이렇듯 ‘실연’의 좌절을 안겨주는 직접적인 환경이 일본 제국주의보다는 조선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당시 그가 “문장과 교육으로 동포를 깨우치자”는 열정으로 오산학교에 교사로 들어가 20대 초반을 바친 사년 여 간의 헌신에 대해 “톨스토이주의를 선전하는 이단자”라는 이유로 학생들과 동료들로부터 배척당했던 이광수 자신의 체험과 상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이광수, 1959).

그런 면에서 이광수에게 조선은 단지 당위론적인 의무였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그 자신의 열정과 욕망을 투사하는 대상이었다. 즉 “문장과 교육으로 동포를 깨우치자”는 계몽적인 야심은 조선과의 관계맺기를 통한 개인적인 차원의 소통에 대한 궁극적인 욕망을 매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대상의 현실은 이광수 자신의 각성된 자아와의 소통 불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일깨워주었다. 반면, 일본 제국의 권력은 그의 동경 유학 시절부터 계속 회유의 손길을 보내왔는데 그를 통해 그가 평소 품어왔던 염원(예술을 창조함으로써 신세계를 열어감)과 소통에 대한 욕망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기실 『무정』의 스토리구조는 이런 상반되는 욕망에 대한 좌절과 성취를 기본으로 짜여 있는데, 여기서 조선의 현실을 상징하는 영채는 단순한 의무의 대상이기 이전에 형식이 일찍이 품었던 욕망과 그에 대한 실망 내지 좌절에 대한 은유로 읽힐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영채에 대한 욕망(민족의 계몽) 역시 작가의 관점에선 매개된 것이다. 그런 계몽적 의지는 일찍이 이광수 개인의 각성된 자아가 눈뜬 사랑 없는 조선의 황량함에 대한 실존적 고독을 ‘영과 육이 합일된 진화된 사랑의 근대화’로 초극하여 현실과 각성된 자아와의 소통가능성을 열고자 하는 궁극적 욕망을 매개한다. 그 서사구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4>

여기서 작품에 묘사된 영채와 선형의 캐릭터, 그리고 형식과의 관계는 각각 조선과 일본 제국에 대한 작중화자의 시선을 반영한다. 영채가 철저하게 무력하고, 퇴락하고, 더러워진 채 자살일로의 행보를 걷는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다면, 선형은 아름답고 뛰어나며 자신의 미래를 열어줄 매개이지만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지는 않'기에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 존재이다. 형식 또한 선형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낀다.

이러한 관계의 기반이 돌아오는 기차여행의 도중에 일어난 천재지변 속에 고통 받는 동포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속에 울컥 일어난 동정의 공감 속에 일체가 되는 클라이맥스로 치달으면서 전복되는데 이것은 한편으론 최주한이 보았듯이 형식 내면의 죄책감을 해소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영채와 선형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다는 당대 작중화자의 소박한 시선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 관계에 대한 염원의 소박함이 지나친 순진함이었던 것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이광수가 1924년에 쓰기 시작해 이듬해 완성된 『재생』에서이다. 『무정』의 성공 이후 이광수가 민족의 희망을 일깨우는 지식인으로 거듭나면서 설 새 없이 논설과 소설로 조선을 깨우치는 글을 발표하고, 1919년 「2·8 독립선언」을 기초하면서 상해 임시정부를 도와 독립운동에 뛰어들 때까지만 해도 그의 '궁극적 욕망'은 매개된 두 축을 통해 성취일로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상해 임시정부가

구성원들간의 파벌싸움으로 분열되면서 실망에 빠진 그는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만 했다. 이때 미국으로 건너와 홍사단 사업을 같이 하자는 도산의 권유를 뿌리치고 조선으로 돌아오게 된 사정을 다음의 술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사단의 이론은 도산의 실천과 아울러서 깊이 내 마음을 끌었다. 홍사단의 주지를 들은 내 인상으로는 민족의 독립은 운동함으로 될 것이 아니요, 민족이 독립의 실력을 갖추므로만 이뤄진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민족의 실력을 기르는 길은 민족 각 개인의 실력을 기르고, 이러한 개인들이 단결함으로 독립의 힘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깨닫고 보니 나는 동포들이 많이 사는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나는 제 주권이 없어 남의 식민지가 된 나라의 독립운동은 국내에서 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이광수, 1962).

그러나 1921년 상해에서 돌아온 이광수가 일본 관헌에 체포되지 아니하고 무사 귀국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지식인들 사이에서 커다란 물의를 빚은 사건이었다. 「2·8 독립선언」을 기초하고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독립신문」의 주간을 맡기도 했던 그가 총독부 측의 아무런 제재 없이 상해에서 무사히 귀국했다는 것은 투항이거나 제국 권력과의 모종의 타협을 전제한 변절이라는 식의 무수한 비난을 받았다.

따라서 이광수의 ‘타협적 개량론’은 당시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서 설 자리가 없었는데, 특히 「민족개조론」(1922)이 발표되고 나서는 “상해에서 돌아온 것과 「민족개조론」에서 민족을 모욕한 죄”를 묻는 일단의 청년들의 위협을 받기도 했고, 그 뒤로도 「민족적 경륜」이 세상의 물의를 일으켜서 퇴사하고, 결국은 병으로 앓아눕기까지 했다. 그런 면에서 이광수가 “내가 상해에서 죽지 아니하고 돌아온 죄는 면할 수 없는 죄”라고 밝히고 있는 점은, 최주한이 논하는바 단순한 죄책감의 고백(최주한 2005)을 넘어 자신의 진정을 알아주지 못하고 죽음을 애국심의 조건으로 강요하는 동포 지식인들의 편협함에 대한 역설적인 항의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완성된 『재생』은 『무정』에서 제시된 욕망의 도식을 따르면서도 선형의 자리를 대신한 백윤희 영채를 대신한 신봉구의 캐릭터와 내적화자와의 관계를 변모시킨다. 백윤희는 더 이상 내적화자의 선택에 의해 ‘맺어지는’ 대상이 아니라, 그를 겁탈하여 꿈쩍 못하게 하는 권력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내적화자인 순영이 어느 정도는 윤희의 능력에 대한 고려에서 그런 상황을 자초하였고, 또 강제로 맺어진 이후에는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환심을 사고자 노력했다는 서술이 덧붙여진다. 반면 봉구는 내적 화자의 시선 속에 더 이상 영채처럼 저 멀리에서 자멸의 일로를 걷는 무력한 존재인 것이 아니라, 순영이 애타게 용서를 간구하고 ‘이해’를 바라는 주체이다. 그러나 내적화자의 드러나지 않은 궁극적 욕망에 대한 이해가 학생시절 같이 3·1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던 봉구로부터 매몰차게 거절당하는 순간 한 때 애뒀했던 관계는 죽음을 부르는 원망으로 변질되고 만다.

4) 소통의 염원과 식민지 근대성의 현실-응답하지 않는 사랑의 숙명

이광수의 소설은 비단 그의 욕망에 대한 서사일 뿐만 아니라 조선의 식민지 현실 속에서 성장과 퇴락의 굴곡을 거둬하는 근대적 주체의 모습에 대한 오롯한 투영이기도 하다. “아직은 인생을 논할 때도, 사랑을 깨달을 때도 아닌” 『무정』의 주인공들이 점차 ‘아이’에서 ‘근대적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낙관적 희망을 담고 있었다면, 『재생』에서는 “3·1 운동 이후 국가와 민족을 주어로 하는 거대서사가 흔들리고 사람들의 몸이 육체적 욕망과 탐욕으로 인해서 파멸되어 가는 모습”(신정숙, 2003)을 포착한다. 이제 식민지 조선은 ‘소화기와 ‘생식기의 세상’으로, 인간의 몸을 자발적으로 훈육·통제함으로써 사회와 민족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망은 퇴색된다. 몸은 새로운 섹슈얼리티의 질서 속에서 훈육되고 통제되고 생장하는데, 그것은 성(性)과 돈을 매개하는 천민 자본주의적 질서이다.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은 이런 상황의 비극이 단지 백윤희로 체현된 일본 제국의 권력·기회구조 뿐 아니라, 순영으로 체현된 조선인의 성향)과 선택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이광수는

‘케도를 이탈한 몸’에 대해 치밀한 계획과 효과적인 실천을 통하여 ‘몸’의 모든 유전 형질을 완전히 새로운 형질로 만드는 작업, 즉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그는 ‘몸’을 ‘해부학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심리적 측면은 사람의 기본적인 가치관, 도덕성과 시기, 간사, 질투, 사랑 등의 감정까지 개조의 영역에 포함한다. 이런 ‘몸’의 모든 측면을 규율하는 것은 ‘습관’으로 규정되는데, 이 습관은 훈련과 수양을 통해 개조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기실 이런 계몽의 프로젝트는 그가 일찍이 바라본 조선사회의 ‘무정(無情)한’ 황량함을 딛고 개인의 인생을 ‘정신적인 자유와 창조의 기쁨’을 통해 예술화하는 것(이광수, 1922b)과 같은 매개된 욕망의 연장선상에 있다.⁶⁾ 이런 면에서 1939년 완성된 『사랑』은 육욕에 의해 죽어가는 육체와 고양된 정신의 대비를 통해 ‘몸’의 개조에 대한 완결을 보여준다. 소설에서 요양원의 의사이자 정신적인 지주인 안빈이 “몸은 정신과 신체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지적하면서 환자에 대한 헌신과 철저한 자기 통제를 통해 몸소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찬 영혼과 ‘강건하고 건강한 신체’를 가진 ‘아름다운 몸’의 목표를 향한 감화를 행하는 모습은 이광수의 민족개조에 대한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
- 6) 신정숙의 논의에 따르면 소설에서 묘사된 순영의 ‘화장’ 습관과 허영심은 순영의 지향성이 그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동인임을 암시한다. 이런 맥락은 이광수가 「야수예의 복귀」 - 청년아 단결하여 시대악과 싸우자 - 에서 화장과 사치한 복장을 ‘조선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7) 이에 대해 최주한은 1920년대 이광수를 필두로 한 『개벽』의 담론을 개인의 사적 영역과 민족에 대한 봉공의 영역이 필요충분조건으로서 서로를 허용하는 새로운 사상의 모색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즉, 사회에 공헌하는 자각한 개인이 이광수의 담론에서 강조되고 있다고 해서 개인이 단지 사회의 향상 발달에 필요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강조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각 개인으로 하여금 예술적·도덕적 개조를 통하여 자주적이면서도 공동의 도덕을 망각하지 않는 자율적 도덕을 갖춘, 데모크라시적 심성을 갖춘 문명한 자아를 사회에까지 확장하려는 시도였다는 것이다. 자세한 논의는 최주한 「개조론과 근대적 개인」 -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을 위한 시론 - 참고.

주지했듯이 이 소설도 앞서 살펴본 옥망의 서사구조를 그 바탕에 깔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지금까지 이광수가 써온 다른 소설들과는 달리 작중화자인 순옥이 안빈 대신 허영에게 몸을 맡기지만 더 이상 작중화자의 그런 선택에서 어떤 옥망이나 자책감도 발견할 수 없고, 단지 체념만이 자리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랑』의 이런 특이성 역시 당시의 정황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데, 이 작품이 동우회 사건에 대한 공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38년 1월말에 시작되어 1939년 4월에 걸쳐 병석에서 구술로 집필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동우회 사건이란 1937년 6월 중일전쟁을 앞두고 군국주의 파시즘의 동향에 발맞추어 동우회 조직을 해산시키고자 했던 총독부가 이광수를 비롯하여 그 회원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애초에 검거된 181명 가운데 42명이 기소되어 1938년 8월의 예심을 끝내고 1939년 12월 제 1심의 선고에서 전원이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다시금 공소되었다가 1941년 11월 4년 5개월 만에 전원 무죄로 끝난 사건을 말한다. 『사랑』이 씌어진 것은 이 시기 이광수의 정신적 지주였던 도산이 체포되어 옥사하고 나서 동우회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된 이광수가 동우회 회원들의 운명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는 책임의식 아래 자신의 정치적인 행로에 대한 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던 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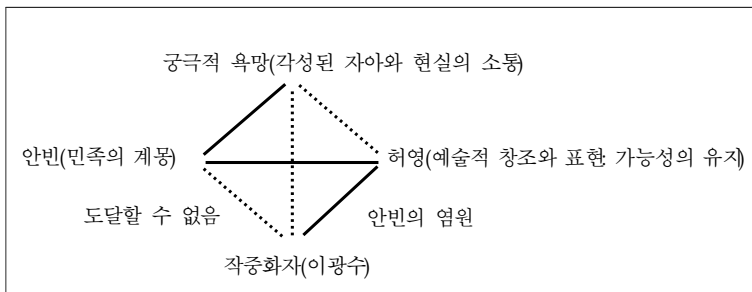
이때 역시 동우회 회원으로 투옥된 형의 긴밀한 부탁을 받고 춘원의 심중을 떠보려 방문했던 김동인이 “총독부에 대하여 전향을 표명하면 혹은 용서될 수도 있겠거니와, 이광수가 버티면 동우회 40~50명의 생명은 형무소에서 결말을 지을 밖에는 없었다”(김동인, 1949)고 훗날 술회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에게는 민족 지도자의 명예와 동지들의 목숨 사이에서 전향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양자택일의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사랑』에서 순옥이 평소 흠모하던 안빈 곁에 있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그 또한 피치 못할 인과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으며 어쩔 수 없이 “내키지 않는” 허영과 결혼하고, 또 그런 전적인 희생을 통해 안빈에 대한 순결하고 정신적인 사랑을 지켜나가려 하는 역설은 그런 직면한 상황의 일단을 반영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금생의 순옥은 전생의 결과인 동시에 내생의 원인이 라고 보는 것이 옳겠지..... 다시 말하면, 순옥과 허영이란 두 사람의 전생으로부터 오는 은원(恩怨) 관계를 금생에 청산해버리지 아니하면 내생까지도 또 끌고 갈 것이란 말요. 한번 떨어진 은원의 씨는 몇 천만 생을 지나더라도 열매를 맺어버리지 않고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 것이 인과의 법칙이니까.”

“그래도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는 없어요. 대하면 싫고 생각만 해도 싫은 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 꼭 혼인을 하란 말은 아니요. 아까 그이가 왔을 때에 순옥이 하는 말에 성난 기운이 있어서 새로운 악업을 짓는 듯싶으니 말이에요. (중략) 지금 허영씨도 순옥이 말에서 받은 상처가 아프고 쓰릴테지. 이리해서 세상의 악의 씨와 원수의 씨가 끊어질 줄을 모르고 눈사람 모양으로 굴러갈수록 더욱 커진단 말야”(이광수, 1967)

작중화자의 그 선택은 복간도로 간 허영이 순옥의 전적인 희생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임종을 맞으면서 순옥이 다시 안빈 곁으로 돌아가는 대단원으로 귀결된다. 그렇지만 그것이 ‘인과론’에 대한 체념을 통한 자기 합리화에 다름 아니라는 최주한의 평가는 왜 『사랑』의 스토리가 그의 욕망·의무의 갈등을 통한 자책감과 합리화의 도식으로부터 벗어나 있는지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 반면 앞서 살펴본 나의 도식을 통해서 본다면 『사랑』이 꼭 기존 이광수의 서사구조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관된 내적논리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광수와 일본 제국의 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천을 겪었다. 그것은 작중화자의 조선에 대한 관계가 단지 의무로만 묶여있지 않은 욕망의 반영이었던 맥락과도 상통한다 『무정』에서 영채가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킬 수 없는 실망스런 조선으로 선행이 궁극적 욕망을 실현시킬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개자로 묘사되었다면 『재생』에서는 윤희가 내적자아의 기본적인 욕망의 일단을 충족시켜 주지만 그것이 ‘겉탈’이라는 강제적인 방식을 관철하는 식민권력으로, 봉구는 윤희로부터 빠져나온 작중화자 순영의 용서와 이해에 대한 갈구를 뿌리치는 매정한 조선 지식인으로 형상화된다. 이렇듯, 이광수의 소설에서 이야기 구조의 변천은 매개된 욕망의 두 축을 중심으로 그 관계의 변천에 따라 보다 바람직한 선택을 향해 내적자아가 벌이는 갈등을 연대기적으로 보여준다

다시 르네 지라르의 논의를 빌리자면, 이렇듯 중개자로서의 타인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의 위력은 궁극적 욕망의 대상과 중개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강하다. 이 욕망의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과도 같은데, 주체와 중개자 사이의 거리가 멀면 대상과 중개자 사이의 거리도 멀고, 주체와 중개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대상과 중개자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진다. 그리고 대상과 중개자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욕망이 강렬해지면 주체가 엄청난 고통 속에 빠지지만 고행의 과정을 거쳐 그 형이상학적 욕망의 정체를 알게 되는 마지막 순간에는 전향(conversion)이라는 종교적 개심에 도달한다.

『사랑』에서 순옥은 정신적 지주로 형상화된 안빈 곁에서 그의 뜻을 따름으로써 궁극적인 정신적 사랑에의 욕망을 충족하려 하지만, 주인공에게 안빈은 물리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 ‘도달 불가능함’의 정체는 사망한 도산일 수도 있고 민족개조의 이상을 실현해나가는 지도자적 지식인 동지들(혹은 근대적 주체)의 부재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빈은 지금껏 이광수의 소설에서 형상화된 어느 누구보다도 궁극적 욕망(그의 각성된 내적자아와 소통할 수 있는 근대적 주체로서의 타자)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 있다. 이런 순수한 대상에 대한 투영은 작중화자의 내면에 걸잡을 수 없이 강한 욕망을 만들어내면서

주체를 엄청난 고통 속에 빠트리지만 실재론 ‘도달할 수 없다.’

반면 계속해서 추파를 던지고 위협하는 허영의 존재는 그 자체가 작중 화자와 안빈과의 사이에서 갈등을 생성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물리적인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현실적 존재를 갖고 있지 못한 안빈은, 순옥에게 은원관계로 묶인 허영에 대한 거부가 자꾸만 계속해서 세상에 ‘악의 씨’와 ‘원수의 씨’를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안빈의 이런 말은 자꾸 사건을 만들어내는 허영과의 은원관계를 더 이상의 분란을 막는 유일한 수단인 결혼을 통해 매듭지으려는 안빈 본인의 염원을 담고 있다. 따라서 안빈을 통한 사랑(혹은 소통)이라는 형이상학적 욕망이 현 시점에서 물리적으로 도달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작중화자가 마지막으로 안빈의 은유적인 염원을 따르는 전적인 자기희생을 통해 기존의 사랑과 소통에 대한 욕망을 접고 철저한 순종으로 ‘전향하게 된다는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결국 죽음으로 치닫게 될 허영과의 관계 이후 그가 지탱해 온 예술적 창조와 표현의 가능성을 통해 돌아가게 될 지점에 대한 여지를 남긴 채…….

3. 결론 : 이광수의 ‘고아 의식’과 식민지 근대성

이광수 소설을 새롭게 조명한 나의 분석은 단지 소설의 내적구조와 작중화자의 욕망 사이에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는 점만을 밝혀내고 있다. 역사적 현실 속에서 그의 계몽주의와 친일행적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이광수와 조선의 관계를 단지 의무에 대한 죄책감만이 일관되게 이어진 것으로 보는 시각은 친일행적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모종의 민족주의적인 잣대나 사후적 설명을 관철하려는 시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보다 심도 있는 역사·사회적 성찰을 위해 극복될 필요가 있다.

조선을 당위론적 의무로, 일본 제국을 궁극적인 욕망의 투사로 보는 이 분법에서 벗어나, 각성된 자아와의 소통에 대한 궁극적 욕망을 추구하는데 매개된 욕망의 두 축 - 민족의 계몽 및 예술적 창조와 표현 -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읽어내야 한다. 매개된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조선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때론 일본 제국에 대한 의존으로, 그 제국의 폭력성과 그를 '사랑하지 않는' 태도가 다시 조선에 대한 회귀로, 그것이 조선의 '몰이해'와 '받아들이지 않음'에 대한 원망으로, 다시 민족 개조라는 이상으로 다가서고자 하는 노력이 물리적인 도달불가능성으로, 그에 대해 증폭된 욕망과 좌절의 고통이 '내키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체념으로 귀결되는 역동적인 과정의 행간을 읽어낼 때 강요된 근대화의 과정을 밟는 식민지의 현실 속에서 근대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아와의 소통을 갈구한 식민지 지식인 개인의 내면 세계와 고뇌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이광수의 소설은 두 매개된 욕망의 축 사이에서 결국 어느 쪽도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궁극적인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 현실적 중개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의 개인적 체험을 반영한다. 더 나아가 이광수가 '소통불가능성의 은유로 표출한 고아의식과 우 쭈어류의 『아시아의 고아』에서 작중화자가 타이완과 일본을 넘어선 희망으로 갈구했던 중국이 드러낸 '이율배반성'(슈준의 물질만능주의와 표리부동함으로 표상된)은 공히 동아시아의 식민지 근대화 과정에서 내재화된 속성, 혹은 근대화되어가는 주체 속에 체화된 '정신과 육체의 분열'에 대한 숙고의 여지를 남긴다. 그 실존의 현실은, 『사랑』의 말미에 안빈이 읊조리듯, 자발적인 근대적 주체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 간의 사랑이 부재한 세상에서 '어차피 사람은 다 거기에서 거기'라는 체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8) 이런 맥락에서 특히 식민지 조선의 '모던 보이', '모던 걸'의 과시적인 치장이나 '경성 스캔들'과 같은 연애행각은 기존의 전통적 타자와의 표피적 대비를 통해서만 '근대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현실을 투영했다. 이렇게 흡수된 모더니티의 피상성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많은 비판이 있었다. 그런 비판들 속에는 진정한 근대화를 위해 정신과 육체의 통합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형식적 근대아녀예 이론이 있거든 오래 내 계몽하여 주리라"는 외침(유광열, 『별건곤』, 1927. 12)과 식민지적 현실 속에서 "근대 도시생활에 부대끼는 피로한 신경의 소유자들에게서 유일한 위안인 모던식 생활의 일체를 박탈하려는 것은 확실히 가혹한 일일 것"(박관양, 같은 책)이라는 심정적 동정이 병존했다. 이들은 공히 '근대화의 주인이 되지 못한 주체들의 고뇌를 대변했다.

근대적 개인으로서 이광수의 실존적 문제의식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직면하지 못하는 상황이야말로 행여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 ‘식민지 근대성’의 현실적인 투영인 것은 아닐까?

■ 참고문헌 ■

- 김동인. 1949. “동우회와 이광수” 『신천지』.
- 김윤식. 1999. 『이광수와 그의 시대』 1: 617, 2. 술.
- 김진송. 1999. 『서울에 판스홀을 許하라』. 현실문화연구.
- 르네 지라르(김치수 역). 2001.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길사.
- 박광양. 1927. 12. “모던보이 춘감”, 『별건곤』.
- 서영채. 2004. 『사랑의 문법』. 민음사.
- 신정숙. 2003.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민족개조사상’과 ‘몸’의 관계양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 신환중. 2001. “한국의 근대적 개인의 형성에 관한 연구: 1910년대 이광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 유광열. 1927. 12. “모던이란 무엇이나”, 『별건곤』.
- 윤홍로. 1992. 『이광수의 문학과 삶』. 한국연구원.
- 이경훈. 2001. “『무정』의 패션.” 『민족문화사 연구』 18: 354-355.
- 이광수. 1922. “감사와 사죄.” 『백조』.
- _____. 1922b. “예술과 인생.” 『개벽』.
- _____. 1931. “余의 작가적 태도” 『조광』.
- _____. 1936. “다난한 반생의 도정.” 『조광』.
- _____. 1959. 『그의 자서전』. 광영사.
- _____. 1962a. 『이광수 전집』 13. 삼중당. p. 247.
- _____. 1962b. 『이광수 전집』 14. 삼중당. pp. 398-399.

- _____. 1962c. 『이광수 전집』 15. 삼중당. p. 21.
- _____. 1967. 『이광수 대표작 선집』 6. 삼중당. pp. 143, 247, 384
- 조동일. 1986. 『한국문학통사』 4: 440. 지식산업사.
- 조연현. 1969.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p. 168.
- 조형근. 1997. “‘어린이’의 탄생과 근대적 가족 모델의 등장’ 서울대 사회과학 연구소, 『근대성의 경계를 찾아서』 p. 155.
- 최승구. 1915. “너를 혁명하라!” 『학지광』 5: 15.
- 최주한. 2005. “개조론과 근대적 개인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을 위한 시론-”
- 최주한. 2005b. 『제국권력에의 야망과 반감 사이에서: 소설을 통해 본 식민지 지식인 이광수의 초상』. 소명.
- Foucault, Michelle. 1979. *Discipline and Punish*. London: Allen Lane.
- _____. 1981. *The History of Sexuality*. Harmondsworth: Penguin.
- Giddens, Anthony. 1992. *Transformation of Intimacy - 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ies*. London: Polity Press.
- _____.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Shin, Michael D. 1999. “Interior Landscapes and Modern Literature”, *Colonial Modernity in Korea*.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김도훈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학위를 받고 2007년 현재 런던정경대학(LSE) 사회학과와 BIOS센터에서 박사학위 과정에 있다. “A Study on Korea’s Response to the Prospect of Stem Cell Technology: With Reference to Hwang’s Scandal”(2007)의 주제로 석사논문을 썼고, 기타 교육 및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교육』(2001 여름), 『창작과비평』(2001 가을) 등에 기고하였다.

[2007. 3. 31. 접수; 2007. 9. 29. 채택]

A Study on the Modern Subject and Colonial Modernity of Korea Represented in Yi Gwang-su's Literature

Kim, Leo

Ph. D. Candidate, Dept. of Sociology, LSE

This article probes the represented will to the modern subject and the reality of colonial modernity, through an analysis on the transformation of 'desire' embedded in Yi Gwang-su's literature. Conventional perspectives on Yi's novels were to discover the innate contradiction of his literature and ideas that were supposed to result from the desire to justify Yi's own deeds - collaboration to the Japanese empire during the colonial period. I try to go beyond the perspective by studying the dynamic interaction between the novel's narrative structure and the historical context.

Adopting René Girard's analytic frame on novels, it attempts to shed light on how the author's will to communicate with a modern subject has undergone a twisted trajectory. It concerns the interaction of Yi's own structure of desire and the historical context that had influenced on it. Instead of regarding his literature as a self-excuse or a justification, the study looks into the 'sense of orphanage' in the text as an existential problem that the intellectuals could not help feeling in the reality of colonial Korea. I argue that the existential problem was a concrete feature of the colonial modernity.

It moves beyond the conventional dichotomy to regard the

represented objects in the text: colonial Korea as a condign duty to serve for and imperial Japan as a reflection of ultimate desire. Rather, I analyse how the two pillars of the mediated desire - the national enlightenment and the artistic expression of himself - consistently represent itself within the context of the historical circumstances. Reading through the convoluted trajectory of the mediated desire I would try to make a step closer to the colonial intellectual's actual mind and agony. I will elucidate how the ego in the literature longed for the communication with a self that could actually practice a modern love. Through this approach and interpretation I'd like provide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today's Koreans as the 'modern subject', and also reflect on the historical / sociological problems they are facing now.

Key words : Yi Gwang Su, literature analysis, modernity, modern subject, colonial modernity, René Girard, mediated desire, modern love